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그러기 싫었는데

길을 걷다가 깔라진 바닥 위에 앉았듯 핀 아쟁화 무리가 반겨 준다. 며칠 전만 해도 그냥 지나쳐가던 그 자리에 언제 자리 잡았는지도 모르게 활짝 웃음을 지어 보인다. 한적한 길이어서 그 누구도 꽃을 보여주는 이가 없다. 사실이다. 누구도 지나간 흔적이 없는 길은 외로움마저 다가온다. 아마도 꽃이 너무 작아서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박여범

홍북중학교 교감 · 시인 · 문학박사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많으면서도 많지 않은 아이러니한 시간이 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만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아니, 시간도 시간이지만 관심이 필요하다.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거리에서 외로움으로 작아지는 '너'와 '나'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시간이 없는 것일까?, '왜' 우리는 조금하거만 하나?', '너무나 많은 걱정'의 시간으로 세월을 저축하나? 등 '시간의 필요성', '기다림의 미학'은 '아하' 이런 것이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학 장르 중 하나가 바로 '시'다.

창비교육, 2018에 발행된 박찬세의 시집 <눈만 봐도 다 알아>의 시작은 닫힌 공간 교실이다. 이 공간에서 아이들은 이미 숨구멍을 찾고 있다. 답답하지만, 그 공간에 순응하는 방법은 단 하나다. 1교시 시작부터 책상에 엎드려 시간을 죽이는 일이 최선이다. 왜냐하면, 닫힌 공간을 벗어 나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 '제자리 걸음'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고 있는데 근영이가 물을 뿌렸다  
발 먹으러 가자고 물을 뿌리며 깨웠다  
발 안 먹는다고 하지 말라는 데도 뿌렸다

안 꺼져 소리쳤더니  
뭐 인내 같이 소리치길래  
근영이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상욱이가 달려와서 말렸는데  
말리는 상욱이한테도 꺼지라고 소리쳤다.  
그러기 싫었는데  
나는 정말 그러기 싫었는데

아들이 보고 있었다.

-박찬세, 눈만 봐도 다 알아 전문-

그런데 문제는 친구 근영이란 놈이다. 절친인 놈은 다정스럽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며 잠을 깨우지 않고 가장 싫어하는 장난치듯 물을 머리에 찌뜨리고 있다. 아무리 친한 친구이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것

은 당연하다. 친한 것은 그 다음이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밥을 먹으러 가자는 것이다. '안 먹는다'고, '꺼지'라고 했는데도 빈둥빈둥 비웃으며 약을 올린다.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 나의 주먹이 근영이의 얼굴을 향해 날아간 것이다. 이런 물의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 상욱이가 달려와 말려댄다. 나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은 더 큰 소리로 역시 '안 꺼져'다.

친한 친구 근영이도 상욱이도 '안 꺼져'란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나는 이 유도 없이, 마냥 싫어서 '꺼지'라고 했다. 그 이유는 '아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영이도, 상욱이도 화자의 눈만 보면 다 안다는 것이 태연하게 밥을 먹으러 가는 장면이 그려지는 시작 상황이다.

'눈만 봐도 다 알아'라는 시의 제목처럼, 근영이도 상욱이도, 주변의 친하지 않은 친구도, 다수의 독자에게도 주먹을 날릴 수밖에 없는 시선이 화자에게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기 싫었는데'

'나는 정말 그러기 싫었는데' 말이다.

이 시에 공감하는 불특정 다수는 '나는 너'가 왜 그랬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래서' '너'를 이해하고 기다려 주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아프다 못해 가슴이 시려 온다. 가슴이 시려오면 울수록 조금 더 가까이서 시의 화자에게 귀를 기울여진다.

근영이와 상욱이처럼 우리는 '너'에게 '밥'은 대화이며 소통의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꺼지고 싶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도, 친구와 조잘조잘 소통할 수 있는 짧은 '웃음의 순간'임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밥'은 아니지? 내가 '꺼져'라고 한 이유는 근영이, 상욱이, 지켜보던 애들도 알고 있었지? 너만의 착각은 아니었지?

이처럼, 현실에 순응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나'와 근영이, 상욱이, 지켜보던 애들도 항상 기를 수만도, 슬플 수만도, 그저 그럴 수만도 없는 것이 싫다. 그래서 더욱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이것은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너'도, '나'도, '우리'도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짜증이 내면 짜증을 내고, 화가면 화내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하고, 허공을 향해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를 지르고,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싫더라도, 정말 그러기 싫더라도?

사설

코로나19 기필코 극복해야

코로나 19가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다. 전북도는 청정 환경 지키기를 강고히 해야겠다.

건강한 일상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 확진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만큼은 아니지만 긴장을 풀 수 없는 나날이다. 전국적으로 누적 확진 환자가 9천 211명이나 되고 사망자가 131명인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실시간대로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요양병원들이 너무나 심각하다.

확진 환자가 하루밤 사이 세 자리수 단위로 늘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사망자가 그치지 않고 날마다 보고 되고 있다. 사망자들 대만 이 60대 이상이니 노인들은 보통 이상의 경계심으로 몸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때는 정부와 보건 당국의 권고대로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여행이나 종교 생활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지금 전북도와 보건 당국은 잘

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잘 하고 있다.

도내에 코로나 누적 확진환자가 10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전북도와 보건 당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 7명은 완치된 상태이다. 최근에 확진 환자로 드러난 3명만 문제이다. 자가 격리 대상자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전부 다 보건자는 아닐 터이다. 따라서 다른 광역 지자체와 비교해 우리 전북은 청정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 19와의 전쟁은 전북도와 보건 당국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일반 시민들도 할 일이 있다. 보건 당국이 요구하는 대로 앞으로 계속 순응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시민 연대의 실천으로 평가될 터이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은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것은 연대 의식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코로나 극복에는 시민 연대가 큰 힘을 발휘한다. 마스크를 끼고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코로나 19를 기필코 극복해야겠다.

지난해 이루지 못한 현안 다시 추진해야

지역 발전은 도민 모두의 바람이다. 전북도는 뜻을 이루지 못한 현안에 다시 주목해야겠다.

지난해 턱걸이를 하되만 주요 현안들을 챙겨야 한다. 코로나 19 때문에 긴장감이 높은 때이지만 그래도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 힘을 쏟는 중에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당부이다.

전북도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전국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중에 지역 발전도 성공적이었으면 하는 기대이다.

전북 발전은 도민 모두의 염원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어야겠다.

다들 성공후사의 정신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제 없다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군산 경제 살리기 대책을 호소하는 것처럼 지역의 현안에 정부 부처가 눈길을 돌리도록 해야겠다. 군산은 수년 전 본래의 모습으로

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기 다시 요구하거니와 군산 현대조선소 재가동이 속히 있어야겠다. 군산의 영세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나날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요지부동이라서 조선소가동이 어렵다면 미래를 접어야 한다. 현대중공업 측에 대한 짝사랑을 접어치우고 전기자동차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

2022년까지 미루지 말고 앞당기는 것이다. 전기차 생산이 군산형 일자리로 정해졌다면 지체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발전 현안 추진이 중요시 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일지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다른 광역 시도보다 많다. 전북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지역의 현실을 꼭 넓게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도지사를 비롯해 각 시군의 단체장들은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사외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결혼 기념사진도 '사회적 거리두기'



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동자바 수라바야의 정부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속에 결혼식을 올린 신랑·신부와 그 가족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집에 있어 달라 했건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J.B. 프리츠커 미 일리노이주지사가 '자택 격리' 등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5일(현지시간) 시카고의 오크 스트리트 비치와 그 주변 도로에서 시민들이 산책하며 따뜻한 날씨를 즐기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